

市·道교육청,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

광주 361건·전남 318건 보유
제정 등 필수 100건 우선 통합
혼선 최소화·연속성 유지 중점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1일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20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치법규 정비는 이원화된 자치법규 총동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교육청 출범 초기

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 361건, 전남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4월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

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자치법규 외에도 추가적인 통합 대상 자치법규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별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절차를 양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함으로써 각 소관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한다.

더불어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부장·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박준수·이선국 시·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7월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욱기자

개학 이후 광주 수두환자 급증 확산 우려... 학교·가정 '주의'

개학 이후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 수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시가 집계한 2026년 수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지역 내 수두 환자는 24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3명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주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주차 11명, 11주차 19명, 12주차 32명으로 매주 환자 수가 늘어나며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은 10주차 8명, 11주차 7명, 12주차 7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12주차(3월15-21일) 환자 수는 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명보다 약 4.5배 증가했다.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두는 전염력이 높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 또는 수포 내용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함께 온몸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기 전까지는 전염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감염이 확인될 경우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생후 12-15개월 사이의 영유아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완료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진료와 함께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나비아 월월 날아라~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둔 20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축제 성공기원을 위한 나비날리기 행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 이어진다. >관련기사 11면 /조영권기자

'개교 50주년' 동강대 "슈퍼 테크니션 키우겠다"

디지털 시대 창의적 인재 목표
오는 23일 교내서 기념식 개최

개교 50주년을 맞은 동강대가 미래 인재 '슈퍼 테크니션(Super Technician)'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1976년 4월23일 동신실업전문학교로 첫발을 내딛은 동강대가 오는 23일 개교 50주년을 맞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다. 지난 50년간 7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사

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길러낸 동강대는 50주년을 계기로 미래 100년을 향한 대도약의 비전을 선포한다. 동강대는 오는 23일 교내 나이팅게일홀에서 주요 내외빈이 참석 한 가운데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민숙 총장은 기념식에서 'Do it great for Super Technician'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상으로 고숙련 기술인 '슈퍼 테크니션' 양성의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이 총장은 "슈퍼 테크니션은 인공지능(AI)

과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첨단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품격 있는 기술인재를 의미한다"며 "이것이 동강대학교가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갈 핵심 교육목표다"고 밝혔다. 동강대는 이번 50주년 기념식에서 AI 기술로 복원한 설립자 동강 이장우 박사의 축하 영상을 상영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1985년 동강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남태평양기술대학교 총장단이 방문해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고 30년 우정을 다진다. /박선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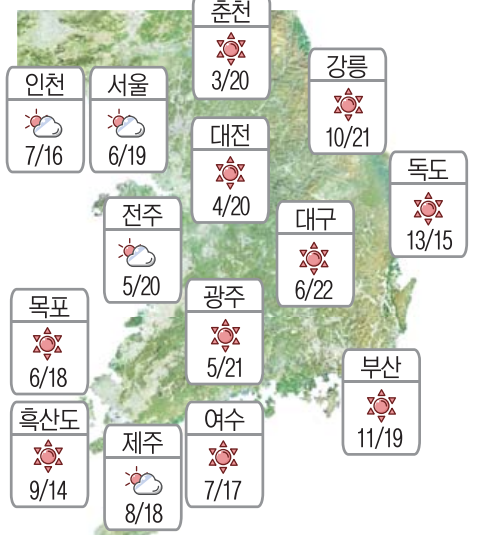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4 해질 19:10 🌧달돋이 08:21 달질 23:56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5/21	장성	맑음	4/20
목포	맑음	6/18	보성	맑음	6/21
여수	맑음	7/17	함평	맑음	4/19
나주	맑음	4/21	순천	맑음	7/22
완도	맑음	5/21	영광	맑음	4/18
구례	맑음	6/21	진도	맑음	8/17
강진	맑음	4/21	흑산도	맑음	9/14
해남	맑음	5/20	고흥	맑음	6/20
광양	맑음	6/21	담양	맑음	4/21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0.5
남부 먼바다(북)	0.5-1.5	0.5-1.5
남부 먼바다(남)	0.5-1.5	0.5-1.5
남해 앞바다	0.5-1.0	0.5-0.5
남해 먼바다(동)	0.5-2.0	0.5-1.5
남해 먼바다(서)	1.0-2.0	0.5-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4:57	09:59	여수	11:28	05:27	06:42
	16:52	22:01		--:--	17:32	12:01
					12:01	18:32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7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주의

●주간 날씨

22일(수)	23일(목)	24일(금)
☀(10/19)	☀(11/17)	☀(9/22)
구름조금	흐려져	맑음
25일(토)	26일(일)	27일(월)
☀(7/23)	☀(10/24)	☀(12/21)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묘이강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문의) 062-464-3466